

深衣考

金 仁 淑

I. 緒 論	A. 材料 및 마름에 쓰인 尺度
II. 中國에서의 深衣의 由來와 그 服飾에 미친 영향	B. 各部의 形意 및 치수
III. 深衣의 우리 나라 傳來와 우리 服飾과의 關係	C. 續衽鉤邊에 대한 辨證
IV. 深衣制度	D. 深衣의 各部形態가 갖는 意味
	V. 結 論

I. 緒 論

本 論文은 上衣下裳과 더불어 古代中國의 固有한 服制였던 深衣制度에 대하여 考察한 것이다.

深衣는 古代 中國에 있어서 天子·諸侯에게는 平服이었으며, 士大夫에게는 朝服·祭服의 다음가는 옷이었고, 庶人에게는 吉服으로 사용되었는데, 이후 儒家들이 이를 先王의 法服으로서 崇尚하였고, 朱熹가 그의 家禮 中에 推舉한 이래로 많은 儒學者들이 深衣制度에 대하여 辨證하여 왔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朱子學의 傳來와 더불어 禮文本位로 儒敎를 파악하였던 朝鮮王朝時代에 있어서는 儒學者간에 深衣가 崇尚되어 착용되었으며 深衣制度의 論辨은 거의 儒學上의 하나의 큰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深衣는 上衣와 下裳이 따로 떨어진 古代 中國服制와 더불어 그 由來가 상당히 오래된 것인데, 衣와 裳이 서로 連綴된 옷으로 대개 白布로 만들고, 衣 四幅, 裳十二幅을 連接하여, 둥근소매와 모난깃을 갖고, 검은선을 가장자리에 두른 일종의 便服이었다. (사진 1)



〈사진 1 深衣着用圖 (韓國名人肖像大鑑)〉

그 起源이 中國服飾의 始源인 上衣下裳과 거의 같은 정도로 오래 되었으며 후일 袍류가 禮服用으로 등장하게 된 始源이 深衣에 있다고 보

여지는 重要한 옷이다. 中國歷代를 통하여 거의 모든 服飾을 만드는데 深衣制度를 원본으로 삼았던 것이며 우리 나라에 들어와서는 주로 儒學者의 服으로 사용되어졌다.

이제 그 制度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알아보고 他 服飾에 어떤 影響을 미쳤는가를 研究하여 보려고 한다. 研究資料로서는 實物과 文獻을 함께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不幸히도 現存하는 實物을 求할 수 없어 文獻中心의 論文이 되었다. 다행히 朝鮮王朝時代의 肖像畫中 深衣를 착용한 것이 몇장 있어 참고로 하기는 하였으나 實物을 보지 못하고 文獻만으로 推考한 까닭에 部分的으로 불확실한 것을 명확히 증명할 수 없었다. 그리고 또한 文獻이 비교적 많아 深衣制度에 관한 諸說을 많이 대할 수 있었으나 說이 紛紛하여 정확한 한가지의 형태를 제시하지 못하고 主流를 이루는 說을 中心으로 하여 제학자들의 說을 열거하여 오늘날까지의 諸說을 살펴 보는데 그칠 수 밖에 없었다.

II. 中國에서의 深衣의 由來와 그 服飾에 미친 影響

中國에 있어서의 深衣의 由來는 상당히 오래된 것 같다.

文獻上에 나타난 最初의 記錄은 禮記王制篇이다.

禮記 王制篇에 보면,

“有虞氏深衣而養老”

라는 記錄이 있다. 虞氏는 古代 中國의 傳說에 나오는 五帝中 舜帝를 말하는 것이다. 傳說上의 五帝는 上古時代의 賢君으로서 傳해질 뿐아니라 後世의 思想家에 의해서 道德的인 模範으로서 神聖化되었는데 이중 舜임금은 仁愛를 根本으로 하는 儒家 道德의 中軸的 存在로 崇仰되어왔다.¹⁾

禮記는 원래 儒敎 經典의 하나로 周末로부터 秦·漢時代의 諸儒의 說을 集成한 것이다. 이것이 儒家의 經典이니 만큼 儒家 道德의 中心으로 崇仰되었던 舜帝가 深衣를 입고 養老의 禮를 行했다고 한 記錄은 舜帝가 정말로 深衣를 입어서

가 아니라 深衣가 後에 儒學者들의 法服이었던 만큼 하나의 儒家的 表象으로서 그렇게 記錄한 것일지도 모른다. 舜帝의 存在여부 자체가 歷史的 事實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한 이 記錄을 事實 그대로라고 믿을 수는 없다.

다만 禮記를 記錄할 당시 傳說上의 人物인 舜帝가 深衣를 입었다고 記錄할 정도로 深衣의 起源이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런데 中國의 服飾制度가 原始衣服의 형태를 벗어나 어느정도 發達된 체제를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옛 기록들을 살펴보면, 五帝時代에 衣裳을 착용했음을 알 수 있다.²⁾

禮記 王制篇의 記錄과 이 記錄들로 종합해 볼 때 中國服飾이 이미 體制化한 단계에 도달한 것은 五帝때 라고 할 수 있는데 衣裳의 制度和 深衣의 制度가 거의 그 時代的 起源을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五帝時代가 歷史上 實在했던 時代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어 衣裳과 深衣制度가 확실히 五帝때 실시되었다고는 단언할 수 없으나, 어쨌든 深衣와 衣裳制度는 옛부터 中國 固有의 服飾에서 二大 主流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深衣制度에 대하여 좀더 확실성 있는 始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禮記의 玉藻 및 深衣篇이다.

禮記의 玉藻 및 深衣 2篇을 보면 深衣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부분적으로는 치수까지도 尺·寸으로 지적되어 있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禮記를 記錄할 당시에 이미 深衣가 制度化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發達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 衣服制度 자체가 短時日에 이루어질 수 있는 性質의 것이 아님을 생각할 때 적어도 그 實際的인 起源은 禮記가 記錄될 당시 보다는 훨씬 소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禮記는 前漢의 戴聖이 편찬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周末부터 秦·漢에 이르기까지의 諸說을 모은 것이니 深衣가 착용된 것은 결국 周末부터 秦漢에 이르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孔子가 老子를 방문했을 때의 그림이나(사진 2), 子路의 모습을 그린 그림(사진 3)을 보면 深衣制라고 보여지는 옷을 입고 있음을 발

1. 大世界史 3(서울:玄岩社, 1971) p. 44.

2. 王宇清, 中國服裝史綱(臺北:中華大典編印會, 196.), p. 38.

견할 수 있는데 孔子는 周末 春秋時代(B.C.551~479년경)의 사람이니 深衣가 착용된 것이 周以



<사진 2 老子를 방문한 孔子> <사진 3 子路>
(漢六朝의 服飾圖版 17)

前부터가 아닌가 추측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深衣가 中國 歷代에 있어 어떻게 사용되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기로 하자.

周代에는 天子의 燕居服으로 사용되었고, 禮記 玉藻에,

“朝玄端夕深衣”

라 있는 것 같이 士이상의 계급에서는 冕服·弁服의 다음가는 옷으로 쓰였으며 동시에 燕居服으로도 사용되었다.

秦·漢에 이르러서는 後漢書輿服志에,

“天子常服, 以通天冠, 深衣, 或著袍”

라고 있어 天子의 常服에 深衣와 袍를 병용하게 되었다.

魏晉南北朝時代에는 百官의 公服中에 八品이하 流外四品이상의 服은 紗單衣와 深衣를 착용하였으며,³⁾ 隋代에는 隋書禮儀志에 기록되어 있는 天子冠服中에,

“絳紗袍深衣制”

라 있어 天子服中의 絳紗袍를 深衣制에 의거하여 만들었음을 알 수 있고, 또

“國子太學四門生服委貌冠深衣”

라 있어 國子監, 太學, 四門學의 學生들이 深衣를 착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唐代에는 주로 士人계급에서 착용하였다.⁴⁾

宋에 이르러서는 士大夫家의 冠·昏·祭祀·燕居·交際의 通服으로 사용되었는데,⁵⁾ 이것은 朱熹가 그의 家禮에 推舉한 때문인 것 같다. 이

후 冠昏喪祭 四禮에는 반드시 深衣를 사용하였으니, 이것은 우리 나라 朝鮮王朝에서도 그대로 지켜졌던 것이다.

明나라에서는 大明會典에 天子服에 대한 기록中에

“素紗中單如深衣制”

라 있어 絳紗袍 안에 입는 素紗中單이 深衣制와 같이 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燕居服中에,

“襯衣黃色深衣”

라고 있어 襯衣로서 黃色深衣를 입었음을 알 수 있다.⁶⁾

深衣는 이렇듯 中國 歷代를 통하여 내려오는 동안 士大夫家에는 深衣 그 자체가 습용되어져 왔으며 天子服에 있어서는 時代가 변함에 따라 禮服用 袍類에 그 制度가 응용되어진 듯하다. 深衣의 制度는 天子의 袍類이외에 女子禮服에도 응용되어졌으니, 中國에는 周代부터 皇后 및 命婦의 朝服·祭服에 여섯가지 服飾이 있는데 後漢書輿服志에 의거하면 이것은 모두 深衣制에 의하여 制作한 것이었다. 後漢書輿服志에서 보면,

“太皇太后·皇太后·皇后入廟, 皆紺衣皂裳, 深衣制……太皇太后, 皇后入廟服的次一禮服是蠶服, 皆青上縹下, 深衣制”

라 있어 后婦의 朝服·祭服을 모두 深衣制에 의하여 만들어서, 朝服일 경우는 上은 紺色, 下는 皂色으로 하고 蠶服일 경우에는 上은 青色 下는 縹色으로 하며 上下를 각각 다른色으로 재단하여 衣裳을 습하여 袍狀의 옷을 만들었던 것을 알 수 있다.⁷⁾ 이 后婦服은 諸時代를 통하는 동안 별 변천없이 그대로 沿襲되어져 왔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深衣는 時代를 통하여 그 自體가 士大夫 間에 입혀져왔을 뿐만 아니라 禮服用 袍類에 그 制度가 응용되어져 사용되어졌던 것이다.

先王의 法服을 모두 따르다는 식의 원칙은 2천여년 동안의 中國사람들의 思想을 지배해 왔지만 끝내는 단지 현실생활의 간편과 적용의 必要에 따라서 梁衣制度는 차차 도태되고 袍·禪의 종류들이 이에 대신하게 된 것이다.⁸⁾

3. 王宇清(1969), p. 185.

4. 바로앞책, p. 191.

5. 바로앞책, p. 193.

6. 바로앞책, p. 171.

7. 바로앞책, p. 204.

8. 바로앞책, p. 98.

Ⅲ. 深衣의 우리 나라 傳來와 우리 服飾과의 關係

深衣가 우리 나라에 어느 때 傳來되었는지는 그 연대를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우리 나라 文獻에 보이는 最初의 記錄은 高麗史 睿宗條에,

“癸丑에 遼의 祭奠弔慰使가 肅宗의 虞宮에서 祭하였는데 王이 深衣를 입고 祭奠을 도왔다.”⁹⁾

라고 있어 당시 이미 深衣가 喪服으로 착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深衣가 우리 나라의 옷이 아니니, 이때 王이 喪服으로서 深衣를 착용하였다고 함은 이미 深衣制度가 우리 나라에 傳來된 것을 말함인데 그 연대는 推定할 길이 없다.

高麗는 그 發達한 文化를 흡수하기 위하여 宋과 親交를 맺어 왔으며, 第11代 文宗 25년에는 정식으로 서로 國使를 교환한 일까지 있었는데, 이에서 宋 文物의 收入은 高麗의 學問, 藝術의 發達을 촉진시키기도 하였다.¹⁰⁾

이러한 가운데 宋의 禮制가 高麗에도 들어왔을 것인즉 第16代 睿宗이 喪服으로 深衣를 입었다고 해서 이상스러운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런데 高麗代에 있어서는 睿宗朝의 이 기록 이외에는 深衣에 대한 기록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고려말 益齋 李齊賢의 肖像畫를 보면 深衣를 착용하고 있다.(사진 4)

李齊賢은 忠烈王 13年(1287)부터 恭愍王 16年(1367)대의 사람으로 性理學의 大家였으며, 이때는 性理學을 大成하고, 深衣를 家禮에 推舉한 宋의 朱熹가 죽은 지도 100여년이 지난 후였다. 그는 젊었을 때에 元나라의 燕京에 건너가 學問을 닦은 바 있는데, 위의 肖像畫는 그가 33세 되던해 元의 陳鑑如가 그린 것이다. 肖像畫를 그릴 당시 그가 深衣를 입었다는 것은 儒學에 심취하였던 학자로서 당연한 일이었다 할 것이며, 우리 나라에 돌아와서도 그대로 입었을 것이라는 것은 추측하고도 남음이 있다.



〈사진 4 李齊賢 초상(韓國名人肖像大鑑 圖 6)〉

그러므로 앞에서 본 바 고려代에 深衣에 대한 記錄은 睿宗이 喪服으로 사용한 것 이외에는 없는 것으로 보아 高麗中期 이전까지는 王의 喪服으로서만 사용되었고, 末期에 이르러 宋學 즉, 朱子學의 傳來와 더불어 深衣가 士大夫중 특히 儒學을 崇尚하는 학자간에 通服이 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朝鮮王朝時代의 肖像畫에는 深衣를 입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 班人階及에서는 燕居服으로 道袍를 많이 착용하였기 때문에 深衣가 一般化하지는 않았으나 儒學에 심취된 儒學者들間에는 深衣를 儒家의 法服으로서 崇尚하고 愛好하였으니, 이는 朝鮮王朝時代의 深衣를 착용한 肖像畫로서도 알 수 있다.

深衣를 착용한 모습의 초상화의 主人公들은 대부분 뛰어난 文人 學者로서 젊어서 부터 정치에 뜻을 두지 않았거나 만년에 정계에서 물러나 性理學의 연구에 힘쓴 隱士들이다. 때문에 深衣가 一般化하지는 못하였으나 이들의 연대로 보아 舊韓末까지도 隱居하고 있는 儒學者간에 계속 착용되어 왔던 것 만은 틀림없다.

그런데 朱子學과 함께 들어온 深衣는 儒者間

9. 譯註高麗史 第二卷(부산, 東亞大學出版社, 1965), p. 72.

10. 柳喜卿, 高麗服飾에 미친 中國服飾의 影響, pp. 7~8.

에 儒服으로서 사용된 것 이외에 儒敎의 과악을 禮文本位로 한 朝鮮王朝에 있어서 朱子家禮에 의거하여 遵守한 冠·昏·喪·祭의 四禮에 있어서의 通禮服으로서도 使用되었다.

즉, 冠禮에 있어서는 主人 및 손님이 다 深衣를 착용하였으며 冠禮者는 冠禮를 行할 때에 初加時에 四袂衫을 벗고 深衣를 갈아 입었다.¹¹⁾

또 昏禮중, 즉 사위될 사람이 女子를 맞으러 가는 길에 그 父母의 喪을 당하면 深衣를 입고 縗總을 한 채로 喪을 치르러 달려간다 하였다.¹²⁾

그리고 喪禮를 행할 때에는 主人이 深衣를 입고 焚香 再拜한다 하였고 죽은 후에는 襲歛할 때에 사용하는 服으로도 쓰였다.¹³⁾

이렇듯 深衣는 朝鮮王朝時代를 通해 儒服 및 家禮服으로 착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時代가 흐르는 동안 우리 나라의 여러 服飾에 影響을 미치기도 하였다.

朝鮮王朝初부터 士大夫의 便服으로 가장 많이 입은 것에 貼裏라는 것이 있다. 우리 나라 國有袍制와는 그 形態가 다르다. 그 制度는 中國式인 上衣와 下裳이 연합된 형태인 바, 허리에 주름이 잡혀 있는 것이 좀 다르기는 하나 衣裳을 따로 分裁하여 合縫한다는 原理에 있어서는 深衣와 근본적으로 同一한 것으로 보아 深衣에서 부터 變形 내지는 由來되어진 옷이 아닌가 생각된다. 李裕元의 林下筆記 및 李肯翊의 燃黎室記述에서 보면,

“우리 나라의 貼裏制度는 深衣와 가장 비슷하므로 中古時代 文士들이 便服으로 많이 입었는데 대개 집안에 있을 때 옷으로 입었고 朝服 밑에 입었는데 지금은 戎服이 되었다.”

고 하고 있다.¹⁴⁾ 이 貼喪는 國末에 가서는 武官들의 軍服으로 삼았고 또 胥吏들의 便服으로 입었다.

寫本 南塘草稿에

“생각컨대 幘頭의 制는 幅巾에서 나왔다. 뒤의 帽子(無角)와 紗帽(有角)의 別도 또 幘頭에서 나왔

다. 野服襪衫의 制는 深衣에서 나왔다. 이는 自古로 沿襲하여 온지 오래다.”

라고 말하고 있어 襪衫도 深衣에서 비롯된 옷이라고 보고 있다.¹⁵⁾

襪衫은 朝鮮王朝時代에 生員·學生·士人이 입었는데, 明史에서 보면 儒生服으로 되어 있어 玉色布絹으로 만들고 寬袖에 皂緣을 두른 것이다.¹⁶⁾

太宗朝에 이르러 成均館 및 五部儒生으로 하여금 靑衿을 始着케 하였거니와 이 靑衿이 바로 襪衫이었던 것이다.¹⁷⁾ 宣朝 22年 처음으로 襪衫을 大學生의 服으로 삼은 이후 이것이 定式이 되었다.

또 우리 나라의 道袍와 周衣의 中間형태인 것으로 縗衣라는 것이 있다. 縗衣에는 大縗衣와 小縗衣가 있다. 이것은 純組代에는 文蔭官에 貼裏 대신 입게 되었다. 후기에 이 縗衣에는 검은 선을 둘러 鶴縗衣라 하여 儒生들이 입었는데, 이 鶴縗衣의 검은 선도 深衣의 皂緣에서 影響되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士大夫의 便服으로 사용되었던 貼裏나 大學生服이었던 襪衫, 儒生들의 鶴縗衣 등이 모두 深衣로 부터 變形되었거나 影響을 받았던 옷들인 것이다.

IV. 深衣 制度

深衣制度에 관한 記錄은 禮記의 ‘玉藻’ 및 ‘深衣’ 두 篇에서부터 비롯하여 이후 오늘 날에 이르기까지 歷代 中國의 諸學者 및 우리 나라 儒學者들의 論據가 허다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禮記의 두 篇에 대하여 最初로 註를 단 사람은 後漢의 鄭玄이었다. 이후 南北朝時代에 이르러서는 疏를 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고, 대

11. 李紱, 四禮便覽(憲宗 10, 1844), 卷之一.

12. 李燾, 四禮纂說(高宗 4, 1867), 卷之一通禮.

「親迎女在途而壻之父母死深衣縗總以趨喪」

13. 李紱(1844), 卷之八.

14. 李裕元, 林下筆記(서울: 大東文化研究所, 1961), 卷 17, 文獻指掌編 7.

李肯翊, 燃黎室記述別集 XIII(서울: 民族文化推進委員會, 1966), p. 575.

15. 金東旭, 韓國服飾史研究(서울: 亞細亞文化史, 1973), p. 364.

16. 明史 卷 67, 志第 43.

17. 朝鮮王朝實錄 太宗 12年 6月, 卷 21, 29.

표적인 사람으로 皇侃, 熊安生 등이 있었다. 唐에 이르러서는 唐太宗이 貞觀 12年 孔穎達에 命하여 禮記正義를 撰하였는데, 이때 孔穎達이 鄭玄의 註를 기본으로 하고 皇·熊 두 사람의 疏를 參작하여 疏를 달았다. 오늘날에 전하는 禮記는 이때 孔穎達이 撰한 禮記이다. 이후 北宋의 司馬光이 古制를 參작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深衣制度를 만들었고, 南宋의 朱熹가 그의 家禮에 深衣制度를 推擧하였다. 그리고 朱熹의 제자 楊復 등이 朱子家禮를 중심으로 하여 深衣論을 썼다. 이후 元의 陳澧 明의 丘濬* 淸의 江永 등이 모두 深衣에 대하여 論한 사람들이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韓百謙, 柳馨遠, 徐有集, 李德懋 등이 그의 文集에 深衣論을 썼으며 李紱, 李懋, 俞榮, 趙好益 등 많은 儒學者들이 그의 家禮에 深衣에 대한 古說을 중심으로 하여 深衣制度를 기록하였다.

現代에 이르러서는 中國의 王宇清氏가 ‘中國服裝史綱’에, 日本의 原田淑人氏가 ‘漢六朝의 服飾’에 각각 深衣制度에 대해 論述하고 있다.

이렇듯 儒學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深衣에 대하여 한번씩은 論하였다. 그러나 大部分 古說에 의거하여 論하였기 때문에 그 說이 비슷하나 最古의 記錄인 禮記 本文中에 記錄되어 있는 “續衽鉤邊”一句에 대한 해석에 있어 諸者마다 說이 紛紛하여 오늘날 까지도 그 제도를 명확히 단언하기가 어렵다. 또 部分的으로 각 사람마다 조금씩 틀린 견해를 보이는 것도 있다.

이제 諸學者들의 說을 같고 다름을 종합하고 체계를 세워 深衣의 구체적인 형태를 推考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모든 諸說이 禮記의 原文을 根本으로 하여 말한 것이므로 이제 諸說을 列擧·綜合하기에 앞서 禮記의 原文을 먼저 提示하여 綜合하는데 엇갈림이 없게 하고자 한다.

禮記 ‘玉藻’에,

“朝玄端夕深衣深衣三袂，縫齊倍要，衽當旁，袂可以回肘，長中繼揜尺，袷二寸，袷尺二寸，緣廣寸半，以帛裏布非禮也。”¹⁸⁾

「아침에는 玄端을 입고 저녁에는 深衣를 입는다. 深衣는 三袂이다. 齊를 縫하는 것은 要를 縫하는 것의 倍이다. 衽은 옆에 있다. 袂는 팔꿈치를 돌릴 수 있어야 한다. 長衣와 中衣는 袂에 이어 尺을 덮는다. 袷은 二寸 袷는 一尺二寸, 緣의 廣은

一寸半이다.」

하였고, ‘深衣’에,

“古者深衣蓋有制度以應規矩繩權衡，短毋見膚，長毋被土，續衽鉤邊，要縫半下，格之高下可以運肘，袂之長短反詘之及肘，帶下毋厭髀上毋厭脅當無骨者，制十有二幅以應十有二月，袂圓以應規，曲袷如矩以應方，負繩及踝以應直，下齊如權衡以應平，故規者行舉手以爲容，負繩抱方者以直其政方其義也，故易曰坤六二之動直以方也，下齊如權衡者以繩取其直權安志而平心也，五法已施聖人服之，故規矩取其無私 衡取其平故先王貴之，故可以爲文可以爲武可以擯相可以治軍旅完且弗費善衣之次也，具父母大父母衣純以續 具父母衣純以青 如孤子衣純以素，純袂緣純邊廣各寸半。”¹⁹⁾

「옛날 深衣는 制度가 있어 規·矩·繩·權·衡에 맞추어 마름하였다. 짧아도 피부가 보이지 않고 길어도 흙을 덮지 않았다. 衽을 續하고 邊을 鉤하였다. 要縫은 下齊의 半이다. 格의 高下는 팔꿈치를 돌릴 수 있도록 하고 袂의 長短은 그것을 접어서 팔꿈치에 이르게 한다. 帶는 아래로 髀를 누르지 않고 위로는 脅을 누르지 않아서 뼈가 없는 곳에 있어야 한다. 마르되 열두폭이 있어 열두달에 응하고 袂는 둥그스름하여 規에 응하고 曲袷은 矩와 같이 方에 응하며 負繩은 踝에 미치되 直에 응하고 下齊는 權衡처럼 平平하다. 故로 規는 걸으며 손을 올려도 負繩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方을 품은 것은 그 政을 바르게 함으로서 義를 方하게 함이다. 故로 易에 坤은 六二의 動을 方으로서 곧게 한다고 말한다. 下齊가 權衡과 같은 것은 뜻과 마음을 평안케 함이다. 五法이 시행되면 聖인이 그것을 입는다. 왜냐하면 規矩에서는 그 사사로운 것이 없는 것을 취하고, 權衡에서는 그 平平함을 취했기 때문이다. 故로 先王은 그것을 貴하게 여겼다. 때문에 文을 治할 수 있었고 武를 治할 수 있었고 相을 접대할 수 있었고 軍旅를 다스릴 수 있었다. 完全하고 또 헛되지 씀이 없으니 善衣의 다음이다. 父母와 大父母를 모두 모시고 있으면 衣의 純을 續로 하고 父母를 갖추어 모시면 衣純을 靑色으로 하고, 孤子라면 衣純을 素로 한다. 純은 袂의 緣이요, 純邊의 廣은 各各 寸半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 두 篇의 內容에 의하여 보면 深衣는 대체로 둥근소매(圓袂)와 모진 깃(曲袷)을 가지고 있으며, 衣裳을 나누어 마름하여 허리에서 縫合하였으며, 허리의 둘레는 밑단둘레의 半이며 옷의 길이는 복사뼈에 닿고 목둘레와 소매부리와 옷가장자리에 緣을 두른 형태의 옷임을 알 수 있다.

이제 諸學者들의 說을 參작하여 구체적인 深衣의 各部形態를 알아 보자.

18. 禮記正義(冊三), 卷二十九 玉藻第十三.

19. 禮記正義(冊四), 卷五十八 深衣第三十九.

먼저 深衣에 使用되었던 材料와 마름의 尺度의 基準이 어떠하였나 살펴 보고 便宜上 深衣의 各部를 衣部, 裳部, 領, 純의 部分으로 나누어 說明하기로 한다.

A. 材料 및 마름에 쓰인 尺度

마름에는 白細布를 쓰고 재는데는 指尺을 쓴다 하였다.²⁰⁾ 옛날에는 冕服만이 명주실로 짠 것이고 弁服·朝服·元端服은 모두 麻衣로서 15升布로 하였다. 深衣에 使用된 재료는 白細布로서 이것도 역시 15升布였다.

司馬溫公은 深衣를 마름하는 尺度는 周尺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楊復은 周制의 尺寸咫尋은 모두 사람의 體로서 본받는다 하였고, 朱文公家禮에 度는 尺寸의 數인데 指尺을 사용한다는 것은 大指와 食指를 벌려 두 步를 尺으로 삼고 中指中節의 한마디를 寸으로 삼는다. 옛날 布의 幅과 衣制는 치수가 정해져 있었다. 그러나 指와 사람의 몸은 長短이 있어 가지런하지 않으므로 끝내는 몸의 길이를 헤아려 거기에 맞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였다.

또 劉氏璋은 深衣의 마름에는 白細布를 쓰는데 두들겨 빨고 갓물로 표백하여 부드럽게 한후 입을 사람의 몸이 비대하면 布幅도 따라서 넓게 하고, 마르고 작으면 布幅도 따라서 좁게 하여 반드시 치수에 구애 받지 않는다 하였다.

禮記 深衣篇에도,

“格의 高下는 팔꿈치를 돌릴수 있도록 하고 袂의 장단은 그것을 접어 팔꿈치에 이르게 한다.”

고 하여 袖口나 純廣의 치수 이외에는 단지 人體의 部分으로서 말하였으니 앞서 열거한 朱子家禮나 楊氏, 劉氏의 說이나 禮記 本文의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보아 深衣는 그 재료는 白細布를 使用하였고, 세탁표백에 의해 布幅을 어느정도 입는 사람의 몸에 맞게 조절하고, 실지 마름에도 指尺을 사용하여 그 尺寸이 반드시 일정한 치수는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B. 各部의 形態 및 치수

1. 衣 部

諸說에 의하면 衣에는 대체로 衣身에 布二幅과 소매부분에 布二幅을 사용하여 모두 布四幅을 썼다.

가. 衣 身

朱文公家禮에 보면 衣身은 넓이가 2尺2寸이고 길이가 4尺4寸인 布二幅을 가지고 만드는데 衣의 길이는 이것을 반을 접어 앞뒤로 늘어뜨리므로 2尺2寸이 된다. 그런데 허리부분의 시접을 1寸 조금더되게 남기면 실제 바느질한 후의 길이는 2尺1寸이 된다. 또 前後四幅의 廣은 모두 8尺8寸인데 여기에서 負繩의 縫할 것 1寸과 領旁의 접을 것 各1寸씩과 兩裳의 소매와 이어질 부분을 左右前後 各 3寸씩 남기면 대략 둘레가 7尺2寸이 되는데 이것은 裳과 이어져 허리둘레가 된다 하였다.

나. 袖(소매)

소매부분은 諸書籍에 袂 또는 袖라고 하였다. 楊氏는 말하기를 左右에 各各 布一幅씩을 衣에 잇는다 하였고, 禮記 深衣篇에는 소매의 길이는 접어서 팔꿈치에 이른다 하였다.

朱文公家禮에는 布二幅을 각각 가운데를 접어 衣身의 左右에 붙이는데 그 넓이는 衣의 長과 같다. 차차 둥그스름하게 줄어서 袂口에 이르면 그 지름이 1尺2寸이 된다 하였다. 즉 衣身에 使用한 것과 같이 長4尺4寸인 布二幅을 衣身의 左右에 붙이는데 앞서 衣身의 兩腋의 前後左右에 남겨놓았던 3寸과 이어져서 袖의 길이는 곧 2尺5寸이 된다. 이것을 안에서 衣와 袂가 이어지는 곳의 合縫할 것과 袂口의 접을 것 各各 1寸씩 남기면 완성된 후의 소매의 길이는 결국 2尺2寸이 된다.²¹⁾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衣의 部分은 衣身에 布二幅을 쓰고 양옆에 各各 布一幅씩의 袖를 붙이고 소매는 점점 둥그스름하게 줄어서 袖口의 크기는 1尺2寸이 된다. 衣에 대한 것은 諸學者의 說이 모두 일치하는데, 따로이 衣의 앞부분에 삼각형의 衿을 붙인다는 說이 있다. 이것은 三才圖會에 있는 敖繼公의 說인데 原田淑人氏도 이 說에 동조하고 있다. 즉 三才圖會에, 衣身의 布二幅이외에 따로 또한 幅을 써서 어긋나게 잘라 두 조각으로 마름하여 內外襟을 만

20. 古今圖書集成, p. 1022.

들어 衣身에 잇는다 하였다. 그 이유는 옛날의 마름법에는襟이 없기 때문에領이 곧지 않았고 모가 나지 않았는데 이제 양 끝을 각각 內外襟에 이르면 입을 때 오른쪽襟의 끝이 왼쪽 갈비뼈에 비스듬히 엇걸리고, 왼쪽襟의 끝이 오른쪽 갈비뼈에 비스듬히 엇걸려서 저절로 두領이 서로 만나 모남이 矩와 같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²²⁾

2. 裳 部

深衣制度에 관한 것중 옛날부터 가장 諸說이 일치되지 않고 구구한 것이 바로 裳의 部分에 대한 것이다. 특히 '續衽鉤邊'에 대한 해설이 제각기 달라 裳의 형태도 여러 가지로 다르게 圖解되었다. 여기에서는 우선 裳의 基本형태만을 파악해 보기로 하고, 續衽鉤邊의 說은 따로 이 뒤에서 論하기로 한다.

裳에는 대체로 布 六幅을 사용한다는 데에는 諸說이 일치하고 있다.

裳의 형태에 대한 諸說을 分類·綜合하여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하나는 布 六幅을 각각 交解하여 12조각을 衣에 이어 붙인다는 說이요, 둘째는 布 四幅을 먼저 衣에 이어 붙이고 裳 옆에 따로이 布 二幅을 사용하여 삼각형의 布를 붙인다는 說이다. 이 두 說을 各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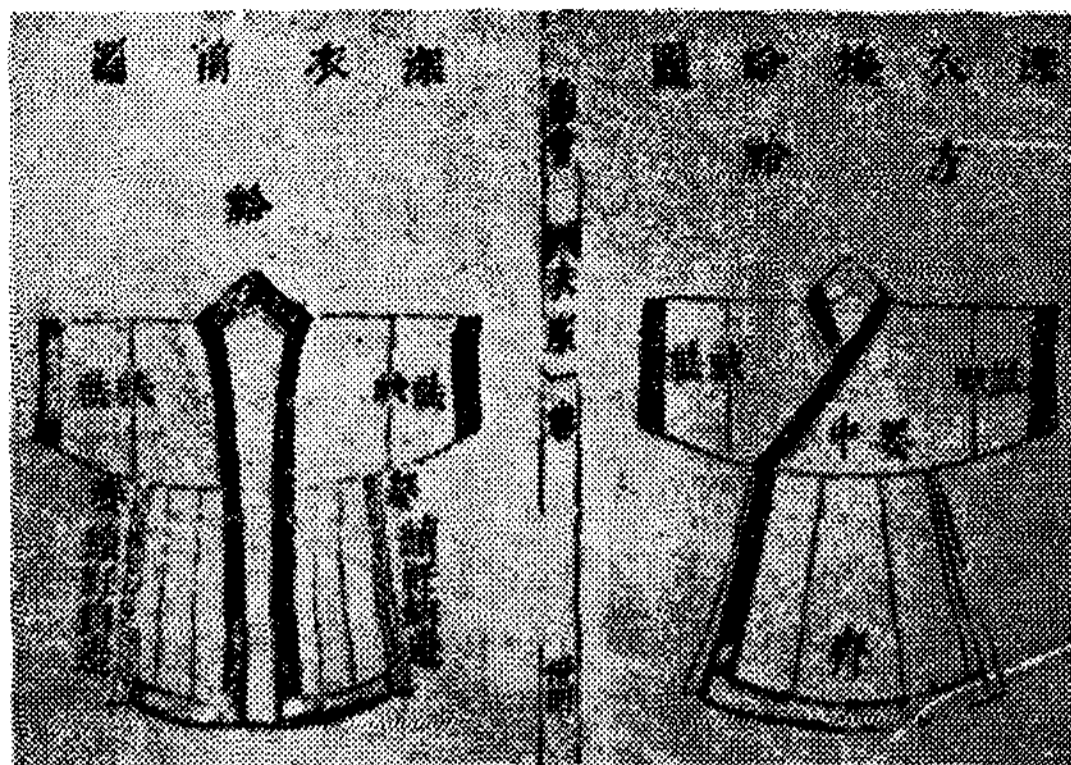
가. 第一說

朱文公家禮에 보면,

“裳은 어긋나게 12幅으로 쪼개어 위는 衣와 이어지고 그 길이는 발굽치에 미친다. 즉 布 六幅을 쓰고 每幅을 잘라 두 幅으로 만들면 한쪽은 넓고 한 쪽은 좁다. 좁은 쪽을 위로 향하게 하여 이어서 衣에 연결하여 縫한다. 衣와 연결되는 대략의 둘레는 7尺 2寸이다. 裳의 每 3幅이 衣의 1幅과 이어지게 된다. 裳의 밑부분의 넓이는 대략 1丈 4尺 4寸이다.”(사진 5)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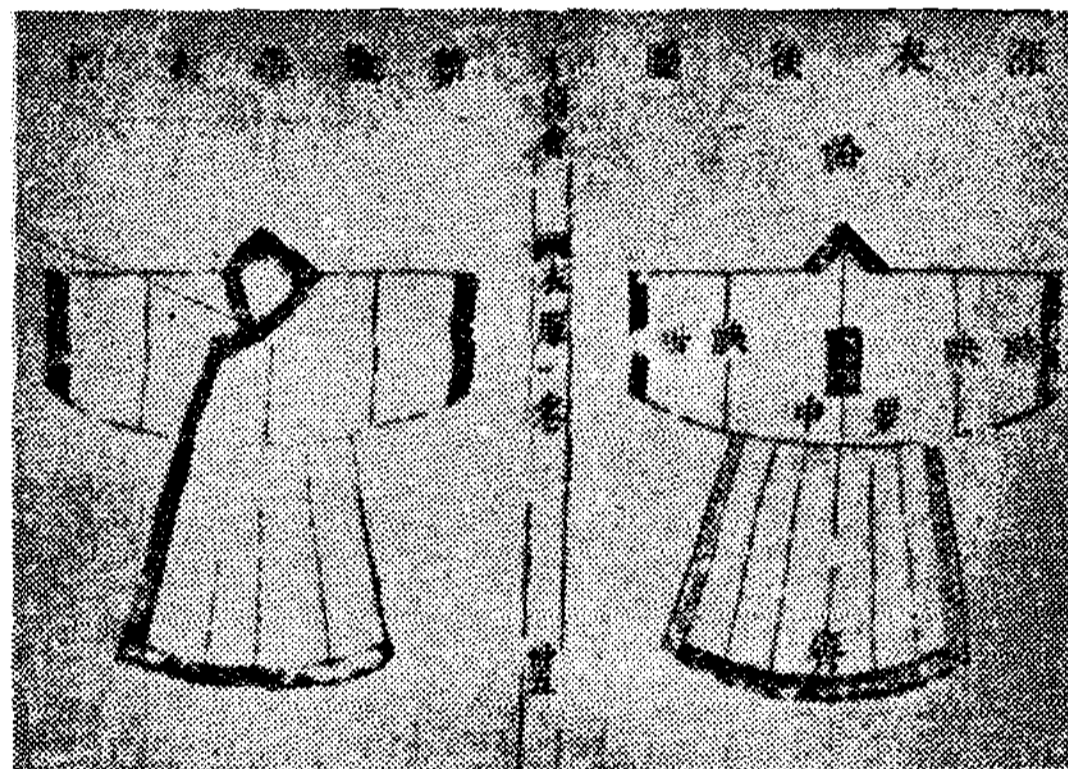
이 12幅을 붙인다고 주장한 사람은 鄭玄, 朱熹, 李德懋, 徐有槩, 韓百謙, 敖繼公 등이다.

그런데 이 중에서 敖繼公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12幅을 붙이는 방법에 있어 裳 每三幅이 衣 一幅에 이어진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사진 5 深衣圖 (三才圖會)〉

있으나 敖繼公만은 12幅으로 마름질하는 것은 같으나 衣에 붙이는 방법을 약간 다르게 주장하고 있다. 즉 布 六幅을 써서 12조각으로 마름하여 뒤에 여섯 조각은 앞의 방법과 같이 붙이고 앞에 4조각은 外襟에, 두 조각은 內襟에 붙인다고 하였다.²³⁾(사진 6)



〈사진 6 新深衣圖 (三才圖會)〉

나. 第二說

따로이 裳旁에 衽을 붙인다는 내용의 說은 우리나라 李圭景의 '五州衍文長箋散稿' 및 日本의 原田淑人の '漢六期の服飾' 中國의 王宇清의 '中國服裝史綱' 등에서 볼 수 있다. 이 중 '漢六期の服飾'이 圖解 및 說明이 가장 잘 풀이 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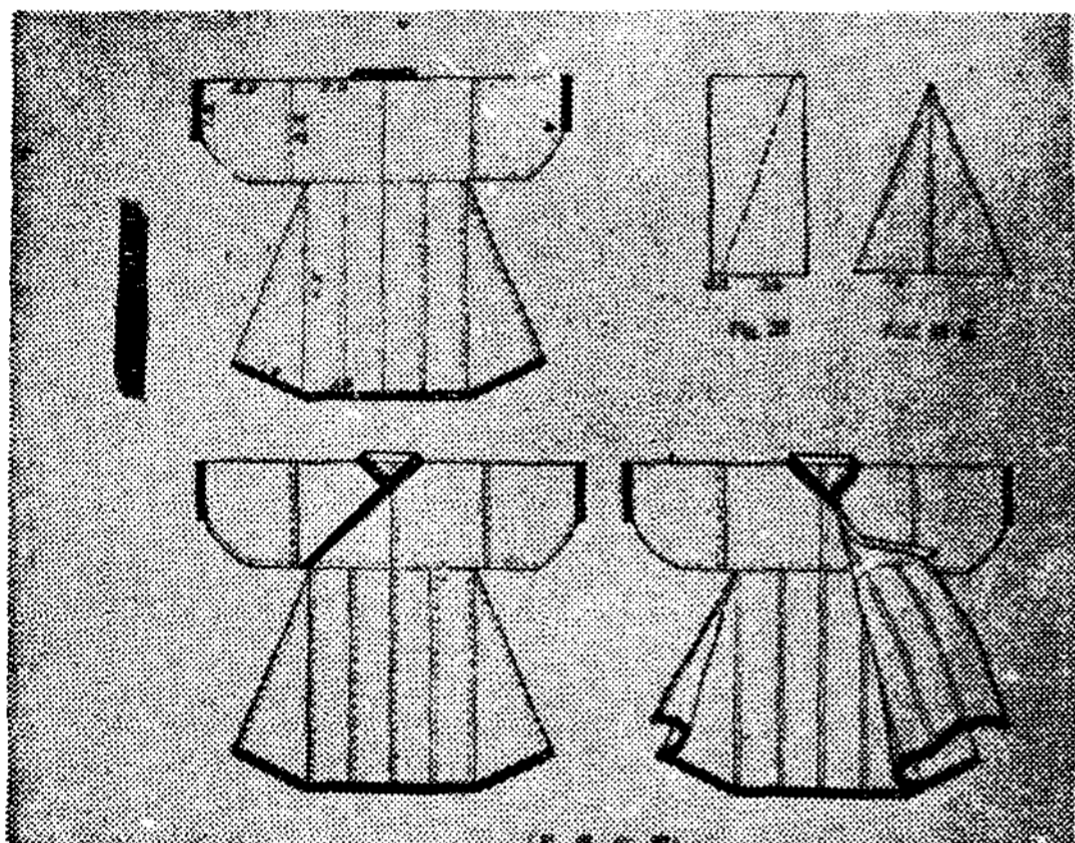
“裳部에는 前後各 布 二幅씩을 쓴다. 各幅을 세로로 幅을 나누어 전부 八幅으로 한다. 兩側의 衽에 布 各 一幅씩을 쓰는데 이것은 各幅을 서로 어긋나게 마름하여 一端은 2寸 一端은 2尺이 되게 한다. 이렇게 하면 전부 4枚의 삼각형의 布가

21. 바로앞책, 同項, 文公家禮 補註참조.

22. 王圻, 三才圖會(四) (臺北, 成文出版社 有限公司印行, 1970), p. 1521.

23. 王圻(1970), p. 1521.

생기는데 이것을裳의 옆에 붙인다.縫하는데에 각 부분의 시접을 1寸씩 제하고,裳部 8幅을 모두 붙이면 7尺2寸이 되어深衣의腰圍가 된다.禮記玉藻의 ‘深衣三祛縫齊倍要’의鄭玄의註에深衣者要中之數也,祛尺二寸,圍之二尺四寸,三之七尺二寸’이라고 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다.裳의衽은 시접 1寸씩 잡아 2枚의 빗자른 것을 꿰매 맞추면(사진 7 참조) 삼각형을 이루어 上端은 그頂點이 되며 下端은 3尺6寸이 되고 양측의 두衽의 下端을 합하면 7尺2寸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裳의前後로合計한 7尺2寸을加算하면裳의齊둘레는 1丈4尺4寸이 된다. 즉禮記玉藻同項의鄭玄의註에 ‘縫紵也 鐵下齊倍要中齊丈四尺四寸’이라고 한 것에 맞는 것이다.”²⁴⁾



〈사진 7 深衣圖 (漢六朝의服飾圖版 26.27)〉

3. 領

禮記 ‘深衣’篇에,

“曲袷如矩以應方”

이라 하였고,朱文公家禮에는

“方領”

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목둘레의 형태가 모난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領에 대해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즉朱文公家禮에 兩襟은 서로 덮고 있고,衽은腋의 아래에 있으므로 兩領이 만나서 스스로方을 이룬다하였고, 그에 대한補註에衣의 양 어깨위에서 각 3寸씩 잘라 그것을 접고 양襟위에서 맞으면 좌우가 서로 만나서 그 모양이 스스로方을 이루는데 이른바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즉領을 따로 만들어 붙이지 않는다는說이다.

또 하나의說은 따로布一條를 써서領을 만들어 붙인다는 것이다.

敖繼公은, 따로布 한幅을 써서領을 만든다²⁵⁾ 하였고,우리 나라의徐有渠는,兩襟이 서로 가리면 그 모양이 저절로 모가 나고矩와 같다.布1條를 쓰는데 넓이는 2寸이고,通常의衣法과 같이領을 만든 뒤에 그 위에緣을 붙인다 하였다.²⁶⁾ 또,朱文公家禮의補註에 따로一說이 있다 하고, 따로布一條를 써서 목뒤로부터 접어 앞으로 돌아와 兩襟위에綴하고 左右가 지런히 그것을 접으면 表裏가 각 2寸남짓되어禮記의 이른바袷 2寸에 해당한다²⁷⁾ 하였다.

朝鮮王朝時代의肖像畫를 살펴보면 대부분은領이 없이 검은 선만을 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田禹와黃茲의肖像畫에는 검은 선 이외에領이라고 여겨지는 선이 그려져 있으니, 실제에 있어서도 2가지가通用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런데 우리 나라韓百謙은 위의 2설과는 아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즉 그의 저서久菴遺稿에 보면,

“袷이라함은 것의 갓이나 옷깃의 兩쪽 갓이 턱에 닿는 곳을 마르재어 베어 方形을 取하니 지금喪服의前襟中の제도와 같아서 목을 넉넉히 넣고 2寸되는 검은 비단으로서 그 가장자리에 선을 두르는 까닭에 曲袷이라 한다.”²⁸⁾

라고 하여 양쪽 갓을 벤 곳이 左右로 서로 합하여 曲袷을 이루는 것이라 하였다. (사진 8) 이것은 다른諸書에서 논한 것과 아주 다르고, 또中國의 풍속도나 우리 나라의肖像畫에도 전혀 보이지 않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런 형태의 옷이 입혀진 것은 아니고 단지久菴이 독단적으로 像像하여 만든 것으로 생각 된다.

4. 純(緣)

深衣에는領과袖口와裳邊에 각각 검은색의 선을 두르는데 이것을純이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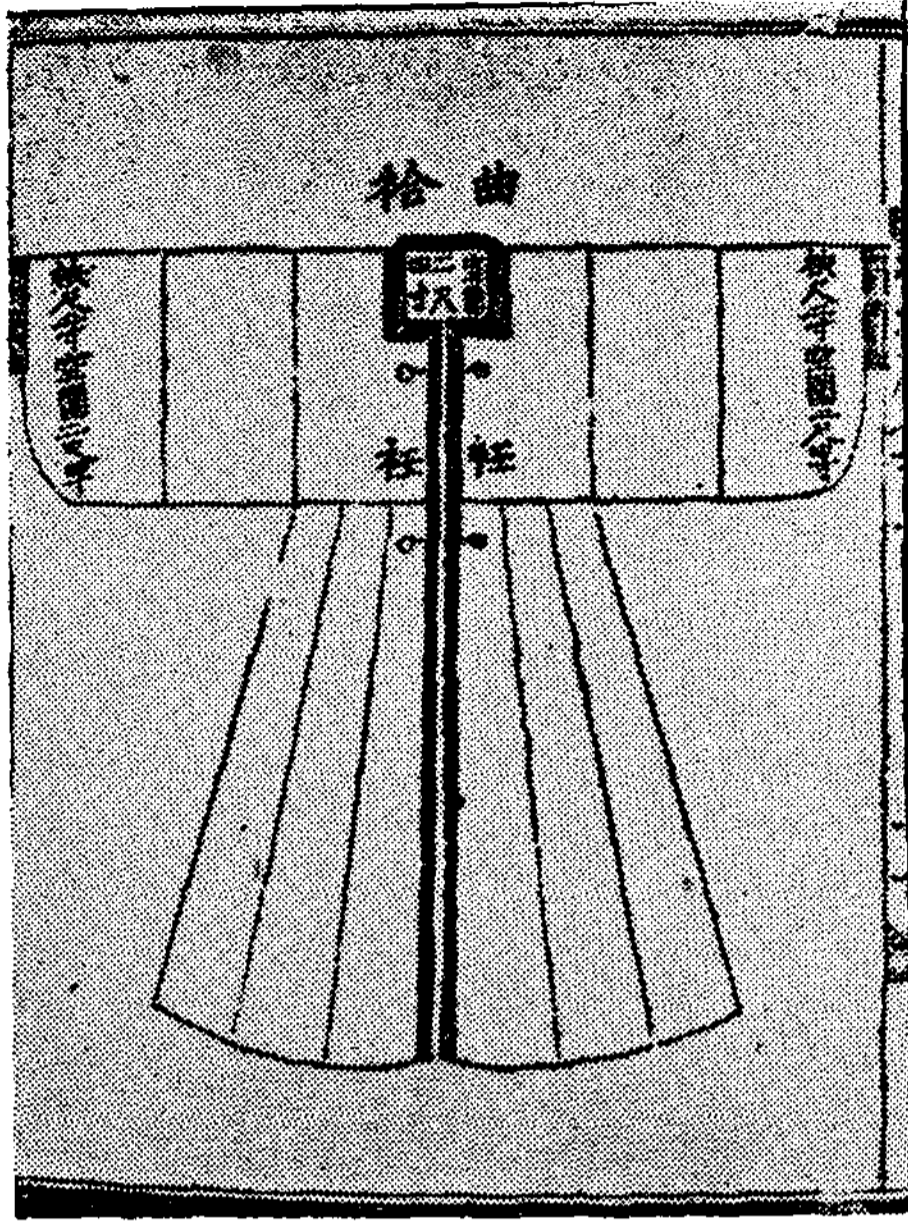
禮記 ‘深衣’註에,深衣는衣裳을連하고采色으로 치장한 것이라 하였고, ‘深衣’原文에는,父母와大父母를 모두 갖추어 모시면衣의純을纁로 하고父母를 갖추어 모시면衣純을靑色으로

24. 原田淑人, 漢六朝의服飾(東京:東洋文庫, 1967), pp. 86~88.

25. 王圻(1970), p1521.

26. 徐有渠, 林園十六志 第二卷(서울:서울大學校 古전간행회, 1967), p.528.

27. 古今圖書集成, p.1023.



<사진 8 深衣圖 (久菴遺稿)>

로 하고 孤子라면 素色으로 한다 하였다.

이로써 보면 古代에는 深衣의 緣이 경우에 따라 色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후에 儒學者들의 法服으로 입혀졌을 때는 검은 비단으로 통일이 되었는데 朱文公家禮에 의하면 이것은 간편함을 따른 때문이라 하였다. 文公家禮이하 諸書에는 모두 검은비단을 쓴다고 기록되어 있다.

緣의 넓이는, 朱文公家禮에, 領의 表裏에 各 各 2寸, 수구와 裳邊에 각각 1寸半을 사용하는데, 領 및 裳邊의 안팎은 本布위에 끼어서 縫하고 袖口는 布의 바깥쪽에 따로이 붙여 잇는다 하였다.

그런데 領 및 袖口, 裳邊의 表裏에 모두 1寸半의 緣을 붙인다는 說도 있다.

徐有榘 및 文公家禮의 補註者는 이 說을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禮記 玉藻에 衿은 2寸 緣廣은 寸半이라 한 文을 살핀 때문이라 하였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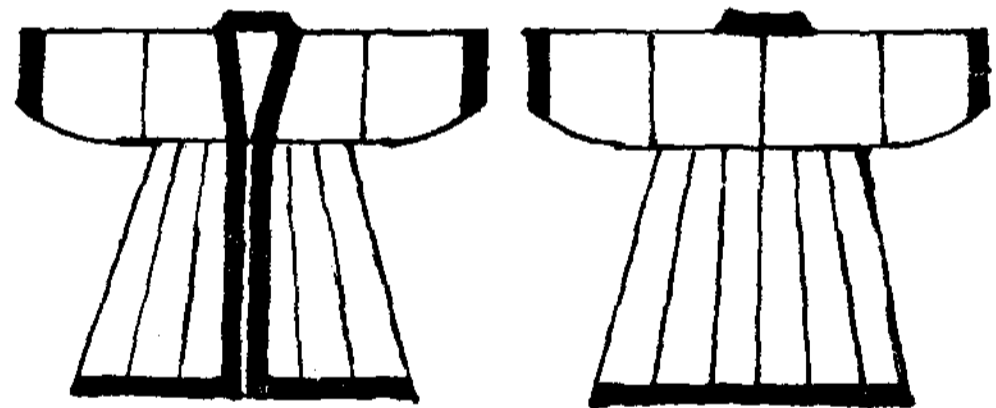
領의 緣廣이 2寸이라는 說과 1寸半이라는 說, 두갈래로 갈라지게 된 것은 앞에서 領을 별도로 만들어 붙인다는 說과 별도로 만들지 않는다는 두 설 때문인 것 같다. 즉, 領을 따로 2寸의 넓이로 만들었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위

에 검은선은 1寸半이라고 생각한 것이고 領이 따로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玉藻'의 '衿 2寸'이라는 것은 領緣의 넓이로 생각하여 2寸의 선을 두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領을 별도로 재단하여 붙인 경우도 있고 領을 별도로 재단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앞서 이미 論證했거니와 따라서 前者와 後者에 상응되는 緣廣도 2寸, 1寸半 2가지가 다 實用되었다고 해석함에 무리가 없을 듯 하다.

이상에서 深衣의 各 部分에 대한 諸學者들의 說을 考察해 보았다. 이제 이로써 深衣의 기본 형태를 추측하여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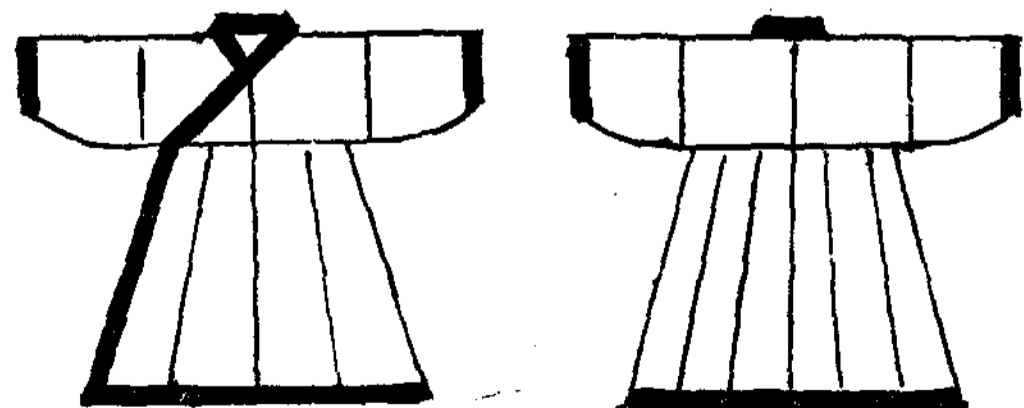
- (1) 衣身은 布二幅을 사용하여 재단하고 그 길이는 2尺 2寸이다.
- (2) 소매는 衣身の 좌우에 각각 1幅을 붙이는데 衣와 縫合되는 부분의 넓이는 衣의 길이와 같게 하고, 점차로 소매 밑부분을 둥글려 수구에 이르면 1尺 2寸이 되게 하였다.
- (3) 裳은 布六幅을 사용하는데 다음 세가지 방법이 있다.
 - ① 각 幅을 어긋나게 마름하여 모두 그 조각을 衣에 잇는 방법.



<前>

<後>

- ② 열두조각으로 하되 後面은 ①과 같고 前面은 外襟에 4幅, 內襟에 2幅을 붙이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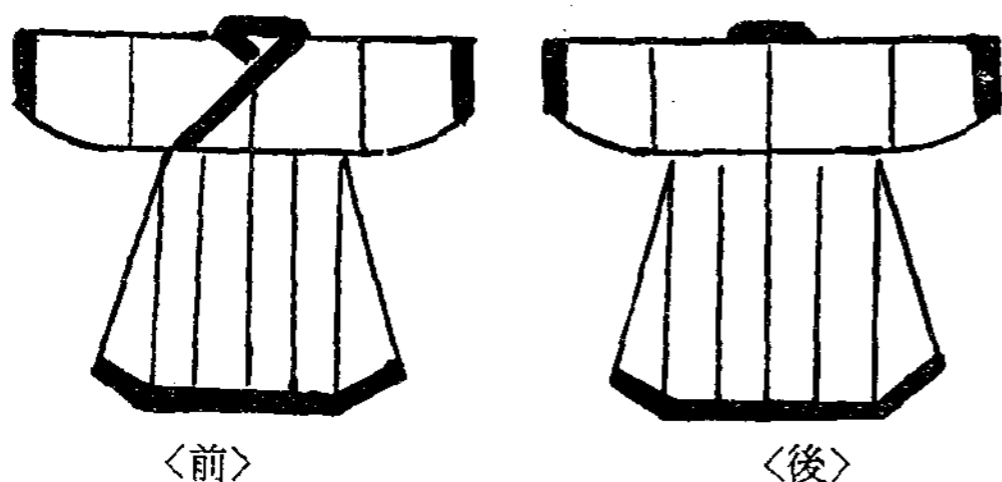
<前>

<後>

28. 韓百謙, 久菴遺稿(서울:悅話堂, 1972), p. 30.

29. 徐有榘(1867), p. 528.

③ 4幅을 세로로 2등분하여 8조각을 衣에 잇고 裳옆에 2幅의 衽을 대는 방법.



이 이외에 衣에 衽을 붙인다든지 선의 넓이가 相異하다든지의 部分的인 차이는 있으나 深衣의 기본적인 형태는 대체로 위와 같이 종합할 수 있다.

C. 續衽鉤邊에 대한 辨證

禮記 ‘深衣’篇에 深衣에 대한 記錄중 ‘續衽鉤邊’이라는 一句가 있다.³⁰⁾ 禮記原文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解說이 없으므로 後世의 諸學者마다 解釋에 苦心하였다. 그리하여 數多한 深衣辨證의 起點이 바로 ‘續衽鉤邊’ 一句에 있었다. 많은 學者들이 ‘續衽鉤邊’에 대하여 言及하였으나 오늘날 까지도 明白히 해결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면 諸學者들의 說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자.

1. 鄭玄의 禮記 深衣에 대한 註.

“續猶屬也 衽在裳旁者也 屬連之不殊衣前後也, 鉤讀如鳥喙必鉤之鉤 鉤邊若曲裾也”³¹⁾

「續은 屬이다. 衽은 裳의 旁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이으면 裳의 前後가 區別되지 않는다. 鉤는 鳥喙必鉤의 鉤와 같이 읽는데 鉤邊은 지금의 曲裾와 같다.」

2. 楊復의 說.

“鄭註之意蓋謂 凡裳前三幅後四幅 夫既分前後則其旁兩幅分開而不相屬 惟深衣裳十二幅 交裂裁之 皆名爲衽 見玉藻衽裳旁註 所謂續衽者 指在裳旁兩幅言之 謂屬連裳旁 兩幅不殊裳前後也 又衣圖云 既合縫了 又再覆縫 方便於著 以合縫者爲續衽 覆縫爲鉤邊”³²⁾

「鄭註의 뜻은 대체로 보통 裳은 前이 3幅 後가 4幅으로 이미 前後가 나누어져 있어 그 旁의 兩幅이 갈라져 이어지지 않은 것이다. 오직 深衣만이 裳이 12幅인데 어긋나게 마름하여 모두 衽이라 한다. 玉藻의 ‘衽當旁’의 註를 보면 이른바 續衽이라고 하는 것은 裳旁의 두 幅을 말하고 그 두 幅을 이음으로서 裳의 前後를 구분할 수 없음을 말한다. 또 衣圖에 合縫한 뒤에 또 다시 覆縫하나

바야흐로 입기에 편하다. 合縫은 續衽을 말하고 覆縫은 鉤邊을 말한다.」

3. 蔡淵의 說.

“謂續衽鉤邊者 只是連續裳旁無前後 幅之縫左右交鉤即爲鉤邊 非有別布一幅裁之如鉤而綴于裳旁也”³³⁾

「續衽鉤邊이란 것은 단지 裳의 옆을 이어 붙여서 前後가 없는 것이고 幅의 縫함이 左右에서 交鉤한 즉 鉤邊이라 한다. 따로 布一幅이 있어 그것을 鉤와 같이 마름하여 裳旁에 붙이는 것이 아니다.」

4. 丘濬의 說

“續連屬也 衽裳之旁幅也 鉤有交互之義 邊者裳幅之側 謂其相掩而交鉤也”³⁴⁾

「續은 連屬이다. 衽은 裳의 旁의 幅이다. 鉤는 交互의 뜻이 있다. 邊이란 裳幅의 옆을 말한다. 그것이 서로 가리워 저서 어긋나게 걸어짐을 말한다.」

5. 白雲朱氏의 說

“續衽鉤邊謂邊也 縫也 衽邊斜幅既無旁 屬別裁立布而鉤之續之 衽若今之貼邊 經曰續衽鉤邊正以鉤邊屬於衽也”³⁵⁾

「續衽鉤邊의 邊은 邊을 말하고 縫을 뜻한다. 衽의 邊은 斜幅이므로 이미 旁이 없다. 따로 마름하여 세운 布에 대어서 그것을 엮어매어 이으면 衽의 아래는 요새의 貼의 邊과 같다. 經에 續衽鉤邊이라고 한 것은 바로 邊을 鉤하여 衽에 잇는 것이다.」

6. 朱熹의 說

“用布一幅 如裳之長 交解裁之如裳之制 但以廣頭向上 布邊向外左掩其右 交映垂之如燕尾狀 又稍裁其內旁大半之下令漸如魚腹 而末如鳥喙內向綴於裳之右旁 禮記深衣續衽鉤邊 鄭註鉤邊 若今曲裾”³⁶⁾

「布一幅을 쓴다. 裳의 長과 같다. 어긋나게 쪼개서 마름하는 것은 裳의 마름과 같다. 단 廣頭가 위로 향하고, 布의 가장자리가 바깥을 향하며 왼쪽 것이 오른쪽 것을 덮어서 交映을 늘어 뜨리는 것은 제비꼬리의 모양과 같다. 차츰 그 안쪽으로 마름하여 大半의 아래 점차로 魚腹과 같게 하다가 끝에서는 새의 부리가 안쪽으로 굽은 것과 같이 되어 裳의 오른쪽 옆에 綴한다. 禮記에 나오는 ‘深衣’의 續衽鉤邊과 鄭註의 鉤邊이 오늘날의 曲裾와 같다.」

朱熹의 제자 楊復은 朱熹가 만년에 深衣를 만들어 입을 때에는 이 曲裾之制를 말했던 것을 버리고 쓰지 않았다고 하여 이 裾의 說은 틀린 것이라 하였다.

7. 韓百謙의 說

“續連也 儀禮喪服篇曰 袂屬幅 續與屬古字通用 衽衣前兩襟也 古衣皆爲上衣下裳 裳從一邊圍腰 前面固已不分开矣 別用一幅布交解裁之 上尖下廣 分綴於衣之兩襟 左掩其右 俾免分開 (中略) 惟深衣衣與裳 連綴 自領下至裳末一面分開 不用別幅爲衽 只兩襟對下 纔相連續故云續衽 兩衽既不得交掩則須

30. 禮記原文 참조.

31. 禮記正義(冊四), 深衣 第三十九.

32. 古今圖書集成, p. 1017.

用結紐(돌마기)左右交鉤然後 可無分開之患 故又云 鉤邊今之箕排領(듭지)即其遺制也 玉藻云 衽當旁 旁布幅邊旁也 (中略) 衽本衣襟交接之名 故凡兩物 連接借以爲喻則固有之 (中略) 且衣裳連綴則 裳之 兩邊皆在前面左右縫合 更不須言也 既曰續衽 又曰 鉤邊向 其文義之重疊 煩覆別爲致詳 於不必詳之地耶 吾恐其必不然也”³⁷⁾

「續은 連함이니 儀禮의 喪服篇에 말하기를 ‘袂는 幅에 屬한다’하였는데 續과 屬은 옛적에는 同字로 通用하였다. 衽은 衣의 앞의 두 襟이다. 옛적의 옷은 모두 위에 입는 衣와 아래에 입는 裳으로 되고 裳은 한쪽 袷으로부터 허리를 두르니 앞면이 본디 헤쳐지지 아니 하였다. 따로 한 幅의 布로서 交解하여 윗쪽은 좁고 아래쪽은 넓게하여 衣의 두 襟에 나눠 붙이고 왼쪽것으로 그 오른쪽 것을 가리워서 헤쳐짐을 면하게 하였다(中略). 오직 深衣는 衣와 裳이 이어 붙어서 것으로 부터 아래로 裳의 끝에 이르기까지 1面이 헤쳐지고 한 幅을 써서 옷깃을 만들지 않고 다만 두 襟이 양쪽으로 마주 내려가서 겨우 서로 연속하니 그러므로 이를 續衽이라 한다. 두 옷깃이 서로 가리워지지 못하니 모름지기 달마기를 써서 左右로 서로 걸어 놓은 뒤에야 헤쳐질 걱정이 없을 것인즉 그러므로 또 이르기를 鉤邊이라 하는데 지금의 듭지가 그 遺制이다. ‘玉藻’에 이르되 ‘衽은 旁에 당한다’하니 旁은 곧 布幅의 가장 자리다(中略). 衽이라 함은 본시 옷깃의 서로 接한 것의 名稱이므로 두 물건의 이어 접한 것을 衽字를 빌어서 비유하는 일도 본래부터 있는 것이다. (中略) 衣와 裳을 이어붙이면 裳의 兩쪽이 모두 앞면에 있어 左右로 꿰매어 습할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이미 말하기를 續衽이라 하고 또 말하기를 鉤邊이라 하니 어찌 그 글 뜻이 重疊煩覆하여 別로 자세하게 할 필요가 없는 곳에 자세하게 하였으리오. 나는 필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사진 8 참조)

8. 朱文公家禮 補註者의 說

“若深衣果裳十二幅則其要與十二幅各合縫爲續衽 裳前兩襟及下齊反屈爲鉤邊 邊則純邊之邊也”

「만약 深衣가 과연 裳이 12幅이라면 그것은 12幅이 각각 더붙어 合縫하여 衽을 잇게 되고, 裳前의 兩襟 및 下齊에 이르러 접으면 邊을 鉤하게 된다. 邊은 純邊의 邊이다.」

“後細思之則 禮記十二幅指深衣一身所用之布 屈裾別用布二幅 斜裁爲四幅 廣頭在下尖頭在上 續裳之兩旁 故謂之續衽 在裳之兩邊 故謂之鉤邊 玉藻所謂 衽當旁是也”³⁸⁾

「후에 그것을 자세히 생각하니 禮記의 12幅은 深衣를 만드는데 있어 한 사람에게 所用되는 布를 가리킨 것이고, 屈裾는 따로 布2幅을 썼다. 비스듬히 마르면 四幅이 되는데 廣頭는 아래로 가고 尖頭는 위에 있어서 裳의 양 옆에 이어진다. 故로

그것을 裳의 양옆에 있는 衽을 잇는다고 하며 때 문에 그것을 鉤邊이라고 한다.」

이상에서 제 학자의 續衽鉤邊에 대한 說을 살펴 보았다. 이를 정리하여 보면 續衽鉤邊이란,

- (1) 裳旁의 幅을 이어 前後가 구별됨이 없게하고 布幅의 縫합이 左右에서 서로 交鉤하는 것.
- (2) 따로 直布를 마름하여 衽의 斜幅에 이어 붙이는 것.
- (3) 裳의 양옆에 삼각형의 布를 만들어 잇는 것.
- (4) 따로 一幅의 布를 交解하여 廣頭를 위로하여 裳 右旁에 綴하여 좌우가 서로 덮이게 하는 것
- (5) 앞면이 마주 닿아 내려가서 겨우 연속하고, 단추를 달아 벌어진 것을 막는 것.
- (6) 12幅을 각각 縫하고, 裳前의 양襟 및 下齊를 접어 꿰매는 것.

등으로 해석되었음을 알 수 있다. 續衽의 說에 있어서는 衽에 대한 見解가 各各 各各 各各으로 해서 여러 갈래가 생긴 것 같으나 대체로 裳 12幅을 각각 衽이라 생각하는 것과 裳 옆에 붙이는 삼각형의 布를 衽이라고 생각하는 두 가지 見解로 綜合할 수 있을 것 같다. 衽의 見解는 다르나 아롱든 衽을 이어 縫하는 것이 續衽이라는 데는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다.

鉤邊의 說은 대체로 縫裁의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衽 또는 布幅의 邊을 이어 붙인다는 이야기로 볼 수 있다. 다만 朱熹와 文公家禮補註者, 韓百謙의 說만이 특이하여 朱熹는 “曲裾과 같다.” 文公家禮補註에서는 兩襟과 下齊를 접어 꿰매는 것. 韓百謙은 단추로 여미는 것이라 해석하였다.

D. 深衣의 各部 形態가 갖는 意味

深衣의 形態는 記錄上에 보면 그 各部位마다 각각 哲學的인 意味를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深衣가 儒學者들의 法服 내지는 지배계급의 燕居服으로, 一般人에게는 禮服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일이다. 各 部位의 哲學的 意味가 서로 互應 調和되어 은연중 深衣를 착용한 사람들의 정신 世界를 淨化 均濟하여 항상 自我를 올바로 다스리려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 各 部

33. 바로앞책, p. 1023.

34. 徐有榘(1967), p. 529.

35. 古今圖書集成, p. 1017.

36. 古今圖書集成, p. 1023.

37. 韓百謙(1972), pp. 28~29.

位의 形態가 가지는 意味를 考察해 보자.

우선 深衣의 形態가 반드시 衣部 裳部가 區別되는 것은 宇宙의 근본이 乾坤에 있음을 상징한다. 원래 乾은 위에 坤은 아래에 있어서 宇宙를 형성하는 것이니 무릇 中國 服飾에 있어서는 곧 衣는 乾을, 裳은 坤을 상징하는 것이다. 衣가 있으면 반드시 裳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乾은 坤을 統涉할 수 있다는 것이 中國哲學이므로 衣가 裳을 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深衣에 있어서 따로 마름질하여 縫合하게 된 것은 乾이 坤을 統涉할 수 있음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乾坤 中心의 宇宙構成 원리를 內包한 것이다.³⁹⁾

이러한 乾坤의 宇宙順理는 다시 치마폭을 열 두폭으로 재단하게 함으로서 더욱 深化 하였음을 알 수 있다. 禮記 深衣篇에 보면 12幅으로 마름질하는 것은 12달에 응한 것이라 하였고(十有二幅以應十二月), 方氏는 이에 대하여,

“열두폭이 열두달에 따르는 것은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이다.”⁴⁰⁾

라고 풀이하고 있다. 하늘의 順理가 運行되면 1年 4季節이 12月로 具現化된다는 것은 中國哲學에 間外漢이라도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이야기다.

袂의 둥근 모양은 規에 應한 것인데⁴¹⁾ 規는 正圓器이다. 禮記 ‘深衣’篇에 보면,

“規는 걸으며 손을 올려도 負繩을 흐트리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 곧 負繩이 지니는 哲學的 意味가 他에 의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려는 뜻이 있었다 한면 이 둥근소매는,

“行者로 하여금 擧手揖讓할 때 禮義를 지킬 수 있게 한다.”⁴²⁾

는 現實的인 實用性도 고려하여 着想된 것이다.

曲袷(領)은 矩와 같이 方에 응한 것이다.⁴³⁾ 矩는 曲尺 즉, 正方器인데 領의 모양을 모나게 한 것은 禮記 疏를 보면, 義가 풀어지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하여 취한 것이라 한다. 禮記, 深衣篇에도,

“方을 품은 것은 그 政을 바르게 하고 義를 모나게 함이다. 故로 易에 坤은 六二의 動을 方으로서 곧게 한다고 말한다.”

라고 하여 曲袷이 義를 바르게 한다는 뜻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負繩이란 深衣 後部の 中心을 縫合한 선을 말하는 것으로 直에 응하였다 한다.⁴⁴⁾ 負繩이라 이름한 것은 繩은 목수들이 선을 칠때 쓰는 먹줄이니 直의 表象이기 때문이다. 곧고 바른 이 선을 등에 짐으로써 그 政이 풀어지는 것을 바로 잡아 곧게 하기 위함이라 한다.⁴⁵⁾

下齊는 權衡 즉 저울처럼 平平하다 하였는데 이는 뜻과 마음을 평안케 하기 위한 것이며,⁴⁶⁾ 權衡처럼 平平하다 함은 저울질한 것 같이 옷모양이 높고 낮음이나 參差가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또 禮記에,

“具父母大父母衣純以纁 具父母衣純以青 如孤子衣純以素”⁴⁷⁾

라 하였는데 그 疏에 依하면 옷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많이 꾸밈으로서 孝를 삼았다고 하였다. 즉 大父母를 모시는 사람은 衣純을 纁로써 했다. 纁는 畫를 말하는 것으로 다섯가지 色彩로 무늬를 그렸는데 차츰 그림이 되었다. 후세의 사람들이 錦을 짜냄으로서 純에서 纁文을 대신하였다. 纁로 緣을 하는 것은 즐거움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父母를 각추어 모시면 純을 모두 青色으로 하여 약간 밝게 하는데 이것은 恭敬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孤子는 純을 본바탕을 그대로 하여 슬픔을 나타내었다. 즉 純의 色도 경우에 따라 구분하여 孝道나 슬픔을 상징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深衣의 形態는 乾坤과 事象을 본받아 그 各部分의 모양을 취하는 한편 規·矩·繩·權衡 등의 모양이 가지는 象徴의 意味로서 深衣를 착용한 사람들의 정신세계를 다스리려 했으니, 禮記 深衣篇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記錄

38. 古今圖書集成, p. 1024.

39. 古今圖書集成, p. 1018.

40. 古今圖書集成, p. 1018.

方氏曰十二幅應十二月者仰觀於天地

41. 禮記正義(冊四), 深衣 第三十九.

袂圓以應規

42. 바로앞책, 同 篇.

故規者行擧手以爲客(行與手謂揖讓)

을 보면 深衣의 象徴的 思想性이 人間의 精神世界를 완벽하게 다스렸을 때 完全人 즉 聖人에도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規는 걸으며 손을 올려도 負繩을 흐트리지 아니하고, 方을 품은 것은 그 政을 바르게 하고 義를 모나게 함이다. 고로 易에 坤은 62의 動을 方으로서 곧게 한다고 말한다. 下齊가 權衡과 같은 것은 뜻과 마음을 평안케 함이다. 五法이 시행되면 聖인이 그것을 입는다. 왜냐하면 規矩에서는 그 사사로움이 없는 것을 취하고 權衡에서는 그 平正함을 취했기 때문이다. 고로 先王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文을 할 수 있었고 武를 할 수 있었고, 相을 접대할 수 있었고 軍旅를 다스릴 수 있었다. 完全하고 헛되지 씀이 없으니 善衣의 다음이다.”⁴³⁾

이와 같은 深衣의 思想性이 深衣가 儒者, 王家, 庶民의 계열에 이르기 까지 오래 세월을 습용되어 오게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되며 우리 나라에서도 深衣着用 肖像畫의 주인공들이 대부분 일찍부터 政界에 뜻을 두지 않고 高孤한 人格수양을 도모하거나 정계를 떠난후 후배양성을 목적으로한 學者들임을 생각할 때 深衣의 意味가 이들에게 크게 共感을 일으켰음을 알 수 있다.

V. 結 論

이상으로서 深衣의 由來 및 그 服飾에 미친 영향과 深衣制度에 대한 것을 살펴 보았다.

深衣는 中國에서는 周이전부터 由來된 것으로 추측되는데 上衣 下裳과 더불어 그 始源이 가장 오래된 중국고유의 복식이다. 天子로부터 庶인에 이르기 까지 上下貴賤의 구별이 없이 通用되었으니 天子 및 諸侯에게는 燕居服이요 士大夫에게는 朝服, 祭服의 다음가는 옷이고, 庶人에게는 吉服이었다.

深衣는 자체가 계속 습용되어져 왔을 뿐 아니라 아울러 中國에 있어 女子禮服用袍類 및 王의 강사포·中單 등에 그 制度가 응용되었으니 곧

長袍類가 禮服化 하게된 始源이 된다. 그리고 朱熹가 그의 家禮에 推舉한 이래로 주로 儒者간에 유행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傳來된 것은 정확한 年代를 알 수는 없으나 高麗史 睿宗條에 王이 喪服으로서 深衣를 입었다는 記事로 보아 高麗中期 以前에 傳來되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적으로 일반 유학자들이 입기 시작한 것은 恭愍王 代의 儒學者 益齋 李齊賢의 深衣를 着用한 肖像畫로 보아 高麗末期 宋學의 傳來와 더불어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후 朝鮮王朝時代의 肖像畫를 살펴 보면 舊韓末까지도 深衣를 着用했음을 알 수 있다.

朝鮮王朝時代에 이르러 朱子學을 崇尚하게 됨에 따라 禮文本位에 치중하여 朱子家禮를 그대로 받아 들여 遵用하였다. 그리하여 儒學者간에 일종의 法服으로서 深衣가 崇尚되어 입혀졌고 또 冠·婚·喪·祭의 四禮儀式을 행할 때에 禮服으로서 사용되었으니 그 중에도 특히 冠禮의 初加時, 喪禮時의 喪主가 이를 着用하였고 襲斂之具로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 中古時代의 士大夫의 便服으로 가장 많이 입었던 貼裏나 儒生服이었던 襴衫·鶴氅衣 등도 모두 그 制가 深衣에서 根源되어 진 것이다.

구체적인 深衣制度에 관하여는 諸儒의 書籍에 그 논거가 허다하다. 사람마다 그 說이 紛紛한데 특히 續衽鉤邊의 해석에 있어 더욱 그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에 대한 확실한 證明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深衣의 形態를 古籍 圖繪를 參證하여 귀납해 보면 深衣制度는 대략 다음과 같은 特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1) 上下를 나누어 재단하고 다시 하나로 꿰매 붙인다. — 즉 衣裳의 區分이 안되고 단지 衣裳의 初型만을 갖춘다.
- (2) 領, 袖口, 裳邊에 純이 있다.

43. 바로앞책, 同篇.

曲袷如矩以應方

44. 바로앞책, 同篇.

負繩及踝以應直

45. 바로앞책, 同篇, 참조.

46. 바로앞책, 同篇.

下齊如權衡者以安志而平心也

47. 바로앞책, 同篇.

48. 바로앞책, 同篇.

- (3) 右衽이다.
 (4) 일정한 비례의 尺寸이 있다.
 (5) 몸체가 넓고 소매가 넉넉하여 형상이 深
 邃하다.
 (6) 허리에 帶를 맨다.

이와 같은 深衣制度의 形態는 部位마다 思想
 性을 내포하고 있어 衣生活로서 精神生活까지를
 지배하여 왔으며 傳統과 法式을 崇尚하는 中國
 에서는 상당히 오랫동안 습용되어 왔으나 生活
 에 있어서의 간편성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서 深
 衣制度는 袍의 종류로 變轉된 것 같다.

深衣의 尺寸은 人體의 자연적 길이에 따라 縫
 裁함을 원칙으로 하였던 것 같다. 후에 다소 까
 다로운 尺·寸에 구애된 적도 있는 듯하나 살이
 보이거나 땅에 끌리지 않을 정도의 길이에 진동
 은 팔꿈치를 돌리기에 지장이 없고 소매는 접어
 올려 팔꿈치에 이를 정도로, 대를 불편없이 맨

수 있으면 되는 것으로 증감이 불능한 일정한
 원칙적 尺寸은 없었던 것 같다.

人體의 自然스러운 尺寸에 맞추어 深邃한 形
 태를 취하고 行태의 象徴的 意味로서 精神세계
 를 다스려 왔던 深衣制度가 中國에 있어서 여러
 他服飾에 영향을 미친것은 틀림없고 우리 나라
 服飾의 二重構造的 性格으로 보아 반드시 우리
 나라의 여러 服飾과 관계가 있다고 보여지니 後
 日 他服飾의 研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資料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끝으로 이 論文을 발표함
 에 있어서 實物이 없어 세세한 부분까지를 명확
 히 규명치 못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또
 深衣와 長袍類와의 관계를 좀더 구체적으로 形
 태를 비교하여 규명했어야 할 것이나 힘이 미치
 지 못하여 아쉬운 일이나 후일의 과제로 미루어
 둔다.

參 考 文 獻

- 金 東 旭; 韓國服飾史研究, 서울:亞細亞文化社, 1973.
 朴 文 鎬; 四禮集儀, 大正 11(1922).
 徐 有 榘; 林園十六志, 第二卷, 서울:서울大學校 古典刊行會, 1967.
 石 宙 善; 韓國服飾史, 서울:寶晉齋, 1971.
 宋 纁; 四禮初稿, 印本, 萬曆元年(1573).
 俞 棨; 家禮源流, 木版, 肅宗 37(1711).
 柳 馨 遠; 國譯註解礪溪隨錄(四), 大田:忠南大學校, 1962.
 柳 喜 鄉; 高麗服飾에 미친 中國服飾의 影響.
 柳 喜 鄉; “李朝의 百官服”, 家政學論文集, 1968, pp.81~145.
 李 康 七; 韓國名人肖像大鑑, 서울:探求堂, 1970.
 李 圭 景; 五州衍文長箋散稿, 서울:東國文化社, 1959.
 李 肯 翊; 燃藜室記述別集, 民族文化推進委員會, 1966.
 李 德 懋; 靑莊館全書, 上卷, 서울:서울大學校 古典刊行會, 1966.
 李 如 星; 朝鮮服飾考, 서울:白楊堂, 1947.
 李 裕 元; 林下筆記, 서울:大東文化研究所版, 1961.
 李 緯; 四禮便監, 木版, 1844.
 李 懋; 四禮纂說, 高宗 4(1867).
 李 恒 福; 四禮訓蒙, 印本, 顯宗 15(1674).
 李 弘 植; 國史大事典, 서울:知文閣, 1968.
 朝鮮總督府中樞院; 李朝各種文獻風俗關係資料撮要, 昭和 14年(1939).
 趙 好 益; 家禮考證, 仁祖 24(1646).
 朱 熹; 朱子家禮.
 崔 南 善; 朝鮮常識(風俗篇), 서울:東明社, 1947.
 韓 百 謙; 久菴貴稿, 서울:悅話堂, 1972.
 韓 元 震; 南塘草稿.
 譯註高麗史, 第二卷, 부산:東亞大學校 古典研究室, 1965.
 大百科辭典; 서울:學園社, 1959.

- 朝鮮王朝實錄; 서울: 國史編纂委員會, 1955.
 桂湖邨; 漢籍解題, 東京: 明治書院, 明治 38(1915).
 聶崇義; 三禮圖.
 王圻; 三才圖會(四), 臺北: 成文出版社 有限公司, 1970.
 王字清; 中國服裝史綱, 臺北: 中華大典編印會, 1969.
 原田淑人; 漢大朝の服飾, 東京: 東洋文庫, 1967.
 魏徵等; 隋書禮儀志.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東京: 大修官書店, 1955~58.
 古今圖書集成; 第七百三十冊, 清康熙帝~雍正帝.
 辭海(上); 臺灣: 中華書局印行, 中華五十八年.
 禮記正義; 臺灣: 中華書局印行, 1968.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of the Simui(深衣) system which was a dress regulation peculiar to old China with skirt and coat.

The origin of Simui is a very long time, that is, before Ju dynasty in China. Its wearing range had a large circle irrespective of rank and good or bad luck.

This was a ordinary dress to the Emperor or the lords, a below court attire or a below sacrificial rites attire to the illustrious officials, and good luck dress to the common people. But this was a funeral rites attire or coming-of-age ceremony attire in domestic behaviour.

In the times of Song dynasty, lots of confucian scholars had put on this simui because of Juhi's recommendation for domestic behaviour.

This Simui had been put on through all the times of China and was the original text of all the dress. Especially the court attire and silkworm working dress of Empress, and the court attire and underwear court attire of Emperor is also made out of this Simui, therefore this is a origin of the ceremonial dress which formed into long coat.

In Korea it is said that this Sir·ui was brought in prior to the middle of Goryeo dynasty. But we can't tell the correct transmitted age.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cords in Goryeo History, "King had put on the Simui as a sacrificial rite attire in the times of Yejong". It is sure that this Simui was brought in prior to the times of Yejong.

In fact, lots of confucian scholars had put on the Simui since the introduction of confucianism in the end of Goryeo dynasty and after that time this was taken by many confucian scholars through Yi dynasty.

Korean Simui system was complied with Chinese system through confucian domestic behaviour. This was respected for court dress of confucian scholars, as it were, Chumri, (an ordinary dress of scholars), Nansam (a uniform of upper student), and Hakchangui (a uniform of confucian student).

There are many deta about Simui system in the book of Yeki, chapter Okcho and Simui, and other many canfucian books. But we didn't demonstrate the theory about it till now. Especially there are diversities of opinions about the phrase of "Sok Im Ku Byun" in Yeki. Simui was cut in separate and then was stitched together in one piece. Generally its shape had round sleeve and angled lapel, its length reaches to the anklebone. And it has a line around the lapel, the sleeve band, and the edge of skirt.

It is called Simui because the body can be wrapped deeply in broad width and large sleeve. The Simui was made of white fine linen and was cut by the natural size of body.

Every part of Simui had a profound meaning; the round sleeve in compliance with regulation can keep a courtesy when a walker moves his hands and the angled lapel like a carpenter's

square in compliance with square keeps them from losing their Justice and a string of the back also keeps them losing from their righteousness and the flat lower part of Simui makes their heart and mind calm.

This Simui was usually attendant on a head cover and belt made cloth, and black shoes.

This thesis was made a study of documents and portrait from Yi dynasty, for the actual object was not obtained.